

고대 호남 동부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수장의 성격*

권오영**

초록 호남 동부지역에서 성장한 복수의 정치체들은 한국 고대사에서 변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원인은 백제, 신라의 중앙, 혹은 도성을 중심으로 고대국가발전사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고대사학계의 인식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가야의 일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현재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 정치체들의 정체성은 단순하지 않아서, 백제, 혹은 가야로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다. 수많은 소규모 정치체들의 물질문화의 양상은 각각 달랐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백제, 대가야, 소가야, 신라 등 주변의 다양한 정치체들의 물질문화를 번갈아가며 도입하였다.

호남 동부지역 정치체들의 발전수준은 다양하였으며 수장 권력의 발전 정도도 동일하지 않았다. 백제나 가야에 대한 정치적 접근방식과 자세도 동일하지 않고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호남 동부지역 정치체에 대한 이해는 백제나 가야에 의해 일시에 병합된 단일 정치체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복수의 정치체로 다루어야 한다. 아울러 백제와 가야, 신라에 통합되는 객체로서가 아니라 이들을 주체로 놓은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호남 동부지역, 정치체, 수장, 가야, 백제, 신라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교수

1. 머리말

삼국시대사 연구에서 호남 동부지역은 연구의 사각지대이다. 기존 연구가 권력의 중심, 즉 왕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연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여럿 생길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환인과 집안, 평양 이외의 넓은 공간이 소외되어 있으며, 신라의 경우에는 경주 이외의 영남 모든 지역은 지배와 통치의 대상이 될 뿐 지역 정치체의 주체성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호남 동부지역은 국가형성기에 환인, 집안, 서울, 경주처럼 왕권의 출현이 이른 시기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고대국가의 왕도가 된 적도 없다. 당연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만약 고고학 자료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면 호남 동부지역은 기문, 대사 등 몇몇 지명의 위치 비정 후보군에 머물렀을 것이다. 고고학의 경우 백



[그림 1] 남원 월산리고분군 조사 광경 및 출토유물

제고고학, 가야고고학, 신라고고학 등으로 분류되면서 호남 동부지역이 들어설 자리는 더욱 애매해졌다. 영산강유역과 한반도 서남부에 점점이 분포하는 전방후원형 고분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이후 영산강유역은 한일 양국의 고대사와 고고학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하지만 호남 동부는 여전히 무풍지대에 머물렀다.

최근 연구 동향을 정리해보자. 1980년대에 발굴조사된 남원 월산리 고분군이¹ 21세기에 다시 조사되면서(그림 1), 전북 동부지역에 가야계 고총이 존재하였음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² 순천 운평리에서도 대가야의 고분문화를 연상시키는 대형 고분이 조사되면서 전남 동부에도 가야계 문화가 존재하였음은 분명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북 장수의 정치체를 장수가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주장은 장수와 남원 일대의 가야계 고분, 그리고 봉수로 주장되는 몇몇 유적의 존재, 문헌에 등장하는 반파라는 정치체가 장수에 있었다는 위치고증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전북 동부의 정치체들을 전북가야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부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지역의 주민들과 일부 언론매체는 이러한 새로운 작명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장수가야, 전북가야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성을 쌓고 고분을 남긴 것을 소재로 삼아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담로제, 『양직공도』의 관련 기사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일본서기』의 이른바 임나사현(任那四縣)의 위치가 여수, 순천, 광양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삼아 전남 동부가 백제와 대가야의 각축 대상이었음을 주목하는 견해도 나타났다. 6세기 중엽 이후에는 가야 여러 세력들을 잠식한 신라가 이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 경쟁 양상이 또 하나의

1 전영래(1983), 『남원, 월산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 전라북도·군산대학교박물관(2004), 『전북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군산대학교박물관(2005), 『전북동부지역 가야유물』.

연구 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의 공통점은 호남 동부에서 성장한 정치체들을 모조리 객체로 전락시켰다는 점이다. 백제의 지방, 대가야의 영향권, 백제와 대가야, 백제와 신라의 각축 대상으로 묘사되면서 이곳에서 성장한 정치체들을 제대로 평가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 정치체들의 수장층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대형 고분에 묻힌 수장층을 가야 여러 세력의 수장층과 비교하거나, 이 지역이 백제와 신라 지방으로 편제되는 과정에서 수장층들은 어떻게 변신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 글에서는 호남 동부지역이 마한에서 시작하여 백제로 이어졌느냐, 가야의 일원이 되었느냐 하는 수준의 논의는 지양하고자 한다. 이 지역을 백제나 가야 중 어느 하나에 포함시키려는 강박증은 삼국시대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 세력만으로 설명하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호남 동부는 백제사나 백제고고학, 가야사나 가야고고학만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단순히 변경이라는 개념으로 취급할 성질도 아니다. 호남 동부는 호남 동부일 뿐이다.

2. 백제 지방론의 문제점

2.1. 마한과 호남 동부

호남 동부지역은 백제의 일부였으며 그 전에는 당연히 마한의 일부였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다. 정말로 호남 동부의 정치체들은 모두 마한의 일부였을까?

경기-충청-전라지역에 퍼져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한 50여 국의 국명을 비정하려는 노력은 문헌적인 검토와 고고학적 검토 두 방면에서 모두

진행되었다. 그 방법론은 『삼국지』 한조(韓條)에 등장하는 마한의 국명이 나름의 원칙에 의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정에 기초하거나, 지식묘의 분포 정황을 통한 위치 비정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연구 방법론에 매우 부정적이다. 우선 지식묘가 묘제로 사용된 청동기시대와 마한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수백 년간의 공백이 있다. 지식묘가 밀집된 지역이 마한 단계에 가서도 인구 밀집, 정치적 권력의 발생지점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마한 각국의 위치 비정은 지식묘가 아니라 2~3세기 유적, 즉 목관묘와 목곽묘, 외형적으로 표현하자면 주구토광묘나 분구묘 분포상황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삼국지』 한조에 그 이름이 전해지는 마한 50여 국 중 호남 동부에 비정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밝혀낸들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마한을 구성한 정치체, 즉 국(國)은 정확히 50여 개였을까? 『삼국지』에 기재된 마한의 국이 50여 개라는 사실은 참이지만 그것이 실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누락된 국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50 이상일 수도 있고, 반대로 과거에는 존재하였지만, 3세기 무렵에는 이름만 전하고 이미 몰락한 국도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호남 동부의 고고학적 문화가 마한 문화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작업도 간단하지 않다. 일단 마한의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결코 단일하지 않아서 다양한 소지역별 단위의 문화가 존재한다. 서울과 청주, 익산, 광주 2~3세기 물질문화는 공통성 못지않게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호남 동부의 이 시기 물질문화가 마한적이나 그렇지 않으나를 판별하려고 할 때 과연 어느 지역의 문화와 비교할 것인가? 현재까지 축적된 주거지 구조, 묘제나 토기상을 볼 때 호남 서부, 그리고 충청권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타날문이 남아 있는 취사용기류, 삼각구연점토대토기, 견부압날문토기, 이중구연호의 유행은 충청 이남 마한권이 공통적이다. 특히 작은 구멍이 다수 뚫린 시루는 호남 서부와 많이 닮아 있다. 토기의

기종과 기형이 이른바 마한토기와 유사점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³

그런데 문제는 호남 동부의 물질문화도 단일하지 않아서 소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과거 섬진강유역의 삼국시대 취락들을 자연지리적 환경과 유적의 분포양상을 고려하여 섬진강 상류권,⁴ 섬진강 중하류권,⁵ 보성강유역권,⁶ 고흥반도권,⁷ 동부 해안권⁸ 등 5개의 지역권으로 나누어 본 적이 있다. 보성강유역권과 고흥반도권은 방형 평면의 주거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82.2%의 빈도를 보인 반면, 섬진강 상류, 중하류 및 동부 해안지역은 모두 원형 평면의 주거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⁹ 후자의 경우는 오히려 서부 경남과 상통한다.

과거의 통계치이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도 대세는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임실지역에서는 호남 서부와 상통하는 4주식 방형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장수 화양리유적에서는¹⁰ 62기의 주거지가 발굴조사되었다. 조사지는 그중 57기를 방형으로 분류하였지만 실제로는 말각방형, 혹은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가 많으며 전형적인 4주식은 2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호남 서부의 전형적인 4주식, 충청지역, 호남 동부와 영남 서부의 중간지대적 모습을 보인다.

3 김낙중(2024), 『전북지역 마한·백제의 고고학』, 진인진, pp. 183-204.

4 남원 세전리유적, 곡성 오지리유적이 포함된다. 곡성군·마한문화재연구원(2008), 『곡성 오지리유적』.

5 구례 봉북리유적이 포함된다. 구례군·남도문화재연구원(2007), 『구례 봉북리유적』.

6 보성강과 구 승주군지역에 해당된다.

7 고흥반도와 약간 내륙의 보성군 일부를 포함한다.

8 여수반도 및 순천, 광양일대이다. 많은 유적이 발견되어 순천권, 광양권, 여수권으로 세분할 수도 있다. 순천대학교박물관·여수시(2002), 『여수 화장동유적 II』. 마한문화연구원(2010), 『순천 덕암동유적 II』.

9 권오영(2008), 「섬진강유역의 삼국시대 취락과 주거지」, 『백제와 섬진강』, 전북문화재연구원, p. 56.

10 심진수(2025), 「장수 화양리 유적」, 『2025 호남고고학회 유적 및 신진연구자 발표』, 호남고고학회, pp. 83-93.

곡성 대평리와 오지리에서 평면 사다리꼴의 제형분이 확인되어 호남 서부와 공통적인 면모를 보이지만 호남 동부에서 제형분은 매우 드물다. 초기철기시대의 점토대토기는 호남 서부와 공통점이 많지만 그다음 단계의 타날문 토기를 이용한 옹관묘가 보이지 않는 점은 호남 서부와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점이다.

호남 동부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큰 정치체의 출현이 지체되었음은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양상이 소지역 단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따라서 호남 동부 정치체를 하나의 명칭으로 통칭하는 것은 불가하며 각 지역 단위 정치체의 물질문화 양상, 발전수준, 주변 세력과의 교섭 양상은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고 판단된다.

2.2. 포상팔국과 남해안 네트워크

이렇듯 호남 동부지역 정치체들의 물질문화가 호남 서부와 다르면서 다양해진 가장 큰 이유는 동쪽의 영남지역 문화의 영향, 그리고 접변이다. 호남 동부의 주거지 평면형이 원형과 타원형이 많다는 점, 생활용 토기가 거창 대야리 등 서부 경남의 그것과 유사함을 주목한다면 지리산의 동과 서를 넘나드는 공통 문화를 인정하게 된다. 임실 석두리, 장수 침곡리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는 영남산 토기의 존재는 완성품의 형태로 이입된 경우와 현지 생산품을 구분하여야 하지만 역시 주목되는 현상이다.

전남 동부 해안가에서 보이는 소가야적인 문화로 인해 심지어 이 지역이 변한에 속한다거나 포상팔국의 하나였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서기』의 이른바 임나사현을 여수, 순천, 광양에 비정하면서 전남 동부를 가야로 보는 견해와 맞물려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열전 물계자전, 『삼국유사』 물계자전의 기사를 토대로 진행된 이른바 ‘포상팔국의 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발표된 바 있다.

그 핵심은 남해안 일대 지역정치체 간의 분쟁에 신라가 엮여 들어갔으며 이는 경주와 김해 사이에 전개되는 교섭의 연장선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이 전개된 시점에 대해서는 3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부터 4세기, 5세기 심지어 6세기 이후로 보는 견해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¹¹ 이 사건을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니라 3~5세기의 사정이 누적된 것으로 보려는 입장이 오히려 타당해 보인다.¹²

필자는 포상팔국의 전쟁은 4세기 말이나 5세기 이후에 전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¹³ 포상팔국의 실체는 무엇일까? 내륙에 위치한 고령은 참여하지 않았고 주로 해안가의 세력들이었을 것이다. 포상팔국을 가야에 국한시킬 이유가 없으며 소가야연맹체로 볼 이유도 없다. 포상팔국에 가야권 중 일부, 즉 남해안만이 아니라 서남해안의 정치체를 포함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보라의 위치를 나주나¹⁴ 삼포천유역으로¹⁵ 보는 견해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사천 월성리유적의 초기철기시대 목관묘에서는 다뉴세문경과 동사(銅鈿)가 부장되었는데 이를 한반도 중서부, 특히 완주 갈동유적과의 유사성에 주목하기도 한다.¹⁶ 거제 아주동 1485번지 유적처럼 호남계¹⁷ 토기와 하지

11 선석열(1997), 「蒲上八國의 阿羅國 침입에 대한 考察」, 『가라문화』 14,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백승욱(2019), 「문헌자료로 본 泗川 史勿國」, 『로컬리티인문학』 22, pp. 285-287.

12 김재홍(2021), 「삼국 초기 海上 英雄과 국가의 성격: 영웅시대의 설정」, 『한국학논총』 56,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 129.

13 권오영(2024),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4~6세기의 교류」, 『세계유산 등재기념 가야고분군 학제간 연구』, 제1회 소가야학술대회.

14 노중국(2005), 「가야의 대외교섭: 3~5세기를 중심으로」, 『加耶의 海上勢力』, 김해시 제11회 가야사학술회의 자료집.

15 김경림(2020), 「保羅國의 형성과 변천」 『지역과 역사』 47, 부경역사연구소.

16 이창희(2022), 「삼한시기 사천의 고고학적 양상」, 『사천 사물』, 사천과 사물국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pp. 50-51.

17 마한계라는 용어 대신 호남계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경기, 충청지역이 아닌 호남지역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키(土師器)가 다량 출토되는 양상을 볼 때 바다를 통한 경남과 전남 해안지역 정치체 간의 교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마도에서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으로 진입하는 해로를 하루에 40-50km 정도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복원한 연구는 “쓰시마-거제 장목-고성만-사천 선진리-여수만-고흥 길두리-고흥 안동-해남 방산리-해남 용두리-안좌도-함평 돌머리-영광 범성포-채석강-금강 입구”를 상정하고 있다.¹⁸ 이 루트는 현재까지 조사된 고분, 특히 일본적 색채가 강한 고분들의 의식한 경로이다.

이 경로에 접한 정치체 중 일부가 포상팔국과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해안지역의 정치체 사이의 관계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모습을 보이는데¹⁹ 내륙의 국경 개념과 달리 바다를 통해 점점이 이어지는 교류의 양상은 전형적인 항시국가의 모습이다.²⁰ 여기에 여수나 광양 등 전남 동부 해안지역의 정치체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순천 용당동 망복유적은²¹ 소가야계 요소가 매우 강하게 보인다.

이렇듯 호남 동부의 정치체들은 남해안 네트워크에 편입된 부류, 내륙의 소백산맥 일대에 소재한 부류가 병존하면서 발전 전략과 정치적 향방이 단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18 이은석(2022), 「삼국시대 연안 항로와 섬」, 『섬(島)의 고고학』, 제31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pp. 118-119.

19 김재홍(2021), 「삼국 초기 海上 英雄과 국가의 성격: 영웅시대의 설정」, 『한국학논총』 56,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 146.

20 권오영(2017), 「고대 동아시아의 항시국가와 김해」, 『가야인의 불교와 사상』, 주류성, pp. 270-273.

21 순천대학교박물관·순천시(2001), 『순천 용당동 망복유적』, 순천대박물관학술자료총서 28.

2.3. 백제의 영역화

호남 동부의 정치체를 일률적으로 마한, 백제, 가야에 귀속시킬 필요는 없다. 이 세력들이 가야 여러 정치체처럼 지역별로 병립하여 발전하였다고 보아도 이상하지 않다. 신라가 가야 여러 세력들을 하나씩 병합하듯이 호남 동부 정치체들도 백제에 하나씩 병합되었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헌자료는 없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일본서기』 게재 6년조의 이른바 “임나사현 할양기사”를 주목하고 있다. 백제가 ‘상다리(上哆利), 하다리(下哆利), 사타(娑陀), 모루(牟婁)’ 등 4개의 지역을 왜에게서 할양받았다는 기사이지만 그 실상은 백제가 이 지역을²² 영역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백제가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은 토기, 고분, 산성 등 물질자료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백제계 토기가 출토되는 경우 백제의 영향력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중앙의 토기는 별로 보이지 않고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토기가 소량 유입되는 정도이다. 백제 중앙의 주거지도 잘 보이지 않지만 곡성 오지리유적 인근 동화정원부지 내 구릉 위에서 이 지역의 전형적인 타원형 주거지와 함께 발견된 장방형 벽주건물(그림 2의 우상단)은 백제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이 백제가 축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이다. 완주 배매산성, 진안 와정토성, 임실 성미산성, 장수 봉서리산성, 순창 합미산성, 광양 마로산성, 여수 고락산성, 순천 검단산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배매산성과 검단산성에서는 벽주건물이, 성미산성과 고락산성에서는 인각와가 출토되었다. 전남 동부의 산성에서는 백제 중앙과 관련된 건물, 즉 초석 건물과 벽주건물이 확인된다. 기와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으며 토제

22 여수, 순천, 광양 일대로 보는 전영래선생의 견해가 제기된 이후 고고학적 발굴조사의 진전과 함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전영래(1985), 「백제 남방경역의 변천」, 『천관우선 생활력기념한국사학논총』.



[그림 2] 곡성 동화정원 가지구 유구분포도²³

호자(변기: 고락산성), 벼루(검단산성), 녹유 잔(고락산성) 등 중앙의 문화, 혹은 지식관료의 존재를 암시하는 유물도 출토된다. 이러한 양상은 백제 중앙의 문화를 향유하는 주민집단의 이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⁴

백제식 고분의 존재도 주목된다. 순창 구미리에서는 20기 이상의 사비기 석곽묘가 조사되었는데 부장된 토기는 백제토기와 가야토기가 혼재한다. 순창 순화리고분(그림 3)은 사비기의 능산리형 석실묘로서 은제 화형 관식(冠飾)의 출토에서 보듯이 백제 지방관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⁵

호남 동부의 대표적인 백제 고분군은 남원 척문리고분과 초촌리고분군

23 곡성군·민족문화유산연구원(2021),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p. 15.

24 권오영(2010), 「백제 변경에서 확인되는 왕경인의 물질문화」, 『한국상고사학보』, 한국상고사학회, pp. 91-114.

25 허윤영(2025), 「순화리 석실분의 조사성과와 백제 사비기 순창지역의 위상」, 『백제학보』 52, 백제학회.



[그림 3] 순창 순화리 석실분의 현실(좌)과 출토 은제 화형 관식(우)

이다. 척문리 고분에서는 백제의 나솔(奈率) 이상의 관인이 소유한 은제 화형 관식이 실물로 출토되었다. 초촌리고분군은 호남 동부 최대 규모의 백제 고분군으로서 200기 이상의 횡혈식석실묘가 분포하고 있다. 피장자에 대해서는 백제 중앙 출신 지방관을 중시하지만 고분군의 총 개체수를 고려하면 중앙에 적극 협조한 현지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초촌리고분군과 척문리고분이 분포하는 남원 이백면 일대는 백제의 프론티어이다.

초촌리고분군에 인접한 척문리산성에서는 문지, 집수시설, 도수시설,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1호 집수시설 내부에서 6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상항(上巷)’, ‘중항(中巷)’, ‘장덕(將德)’ 등의 글자가 확인되어 이 성이 사비기 남방성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덕은 백제 16관등 중 7등에 해당된다. 병오(丙午, 516년 또는 576년)와 병신(丙申, 526년 또는 586년)명 인각와가 다량 출토된 점을 볼 때 웅진기와 사비기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계 석실은 이외에도 남원 사석리, 순창 내월, 순화리, 임실 구고리, 운정리, 구례 봉동리, 이평리 등지에 소재한다. 남원 두락리고분군은²⁶ 세장한 수혈식 석곽, 고령양식 토기의 존재를 볼 때 대가야 고분문화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5호분은 가야계 석곽에 가야계 토기가 부장되면서 한편으로는 무령왕릉 출토품과 유사한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36호분(구 2호분)은 긴 좌편제 연도를 가진 황혈식석실묘로서 고령 고아동의 석실묘와 함께 백제 웅진기 석실과 유사하다. 다만 백제로부터의 직접적인 유입이 아니라 백제 석실묘의 영향을 받은 대가야 석실묘가 유입된 것으로 보면서 백제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²⁷ 제기되었다. 두락리고분군을 축조하던 세력이 대가야식의 고층을 축조하다가 백제식 장신구, 나아가 간접적으로나마 백제 중앙식의 석실을 도입한 셈이다.

호남 동부에서 백제가 주도한 생산활동의 흔적은 진안 월계리 와요지 정도에 불과하다. 고분과 석곽 이외에 백제의 지방지배와 관련된 유적을 더 찾을 필요가 있다.

3. 가야연맹론의 문제점

3.1. 가야연맹론의 내용

호남 동부 지역 정치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막연히 백제 영역으로 인식되던 관성을 깬 것은 장수와 남원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시작되었다. 남원 월산리고분이 조사되면서 가야계 고분문화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후 전남의 순천 운평리유적이 조사되면서 전북과 전남 모두 동부지역에

26 전라북도남원군·전북대학교박물관(1989), 『斗洛里』 전북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2.

27 김낙중(2024),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36호분과 가야, 백제 및 신라」, 『한국고고학보』 131, 한국고고학회, p. 303.

가야계 물질문화의 존재가 분명해진 것이다.²⁸ 차이점은 전남에서는 소가야, 아라가야, 대가야의 요소가 모두 보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전북에서는 대가야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당시의 교통로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전북 동부에서도 금강 상류역에 해당되는 장수,²⁹ 남강유역권의 남원 운봉일대 고분 문화가 대가야권 고분문화와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 장수 일대 최고 위계 고분군은 삼봉리고분군이며, 남원 운봉일대에서는 최고 위계 고분군이 월산리고분군에서 유곡리-두락리고분군으로 이동한다.

문헌적 증거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전북 동부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분군의 존재로 인하여 이 지역을 가야문화권, 나아가 가야권으로 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운봉 일대를 사서에 나타나는 기문(己汶)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대두되었고 학계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장수에 대해서는 ‘반과’에 비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강하게 대두되자 장수가야라는 새로운 국명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무리수는 모든 정치체는 반드시 그 이름이 사서에 남아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과연 그럴까? 고대의 정치체는 모두 고유한 명칭이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누가 만들었고 과연 진리인가? 당시에는 이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는 정치체의 수가 오히려 많지 않을까?

국명의 존재 여부 및 비정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남원 아영면과 장수 일대에 가야계 대형 고분을 남긴 정치체의 성격 해명이다. 묘제와 부장품이 대가야의 그것을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가야 중에서도 대가야 연맹의 일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고령 주변의 합천, 함양, 거창 등지에 고총고분을 남긴 세력에 대한 설명에서 등장한 대가야연맹론이 점점 확장되어 마침내 호남의 고분군에 대해서도 적용된 것이다.

28 박장근(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29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2020), 『長水 東村里 古墳群』.

다만 아쉬운 점은 전남의 대표적인 대가야계 고분이 존재하는 순천, 전북의 남원, 장수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가 진행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순천과 여수 등 전남 동부 해안지대에서는 4세기 이후 가야계 문물이 꾸준히 유입되고 마침내 대가야계 고총이 등장하게 된다. 순천과 여수의 가야계 고분 중 일부에서는 소가야적인 요소가 강하므로 이 지역이 한때 소가야 연맹의 일원이었을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다. 반면 전북 동부에서는 대형 고분의 발전이 매우 미흡하던 상황에서 5세기 이후 급작스럽게 대가야계 고총이 등장한다. 따라서 호남 동부를 대가야연맹의 일원으로 보려는 연구에서는 양 지역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호남 동부를 대가야의 일부로 보려는 시각은³⁰ 510년대 백제가 이른바 임나사현과 기문지방을 장악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는 후기 가야연맹에 소속, 혹은 대가야의 간접지배 대상이었다고 보는 견해와³¹ 상통한다. 다만 그 강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가야의 일원인지 간접지배의 대상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 사실 영남지역의 이른바 대가야연맹을 구성하였다고 추정되는 여러 지역 정치체의 경우도 고령과의 밀착 정도는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3.2. 가야연맹론 비판

1) 유적의 성격에 대한 재고와 가야의 합의

장수지역 정치체의 명칭, 그리고 발전 수준에 대한 논란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봉화시설이다.³² 『일본서기』에도 봉화와 관련된 기사가 나

30 박천수·정선운·신동호(2021), 『가야, 영호남을 넘다』, 경북대학교출판부.

31 이동희(2008), 「5세기 후반 백제와 가야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pp. 129, 133.

32 조명일(2018),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조명일(2021),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구조」,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임실군; 광장근(2021),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과국 비정」, 『전북학연구』2, 전북연구

오기 때문에 봉화는 분명히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문제는 전북지역에서만 120여 기가 확인되었다는 봉화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언제 축조되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이들 봉화의 분포양상이 장계분지를 향하거나 장수지역을 감싼 형태라면 그것이 장수지역 정치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 조사가 진행된 24기 봉화에서 출토된 유물의 대부분이 사비기 백제 토기라는 점, 이른바 봉화 사이의 간격이 2~5km에 불과하여 봉화라기보다는 소규모 산성에 딸린 전방초소나 보조시설 정도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³³ 제기된 바 있다. 산성과 산성 사이의 가시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능(그림 4)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봉화로 주장되는 유적을 근거로 장수가 기문이었다거나 강력한 가야의 일원이었다고 볼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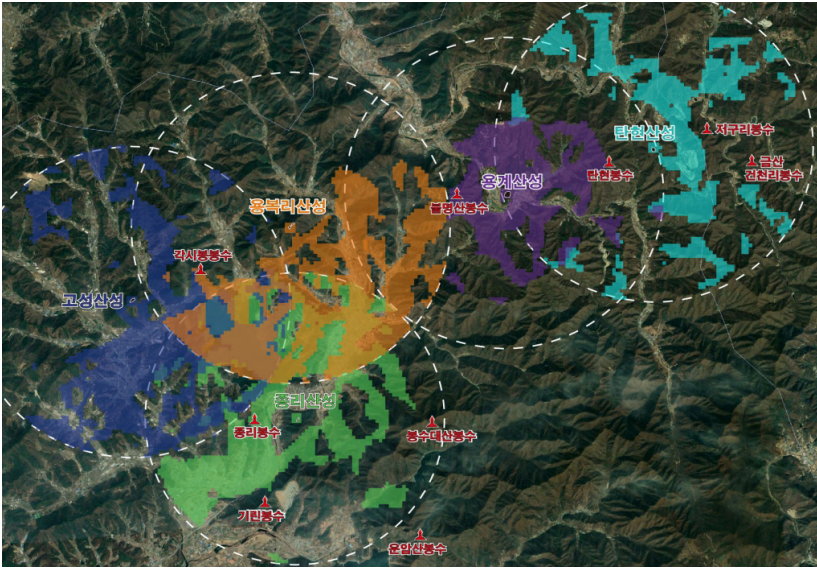
제철유적의 존재도 중요하다. 전북지역에서 2022년 당시까지 발굴조사된 제철유적은 19개소에 이른다.³⁴ 특히 완주 상운리와 수계리로 대표되는 만경강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문제는 호남 동부에서 삼국시대의 제철 유적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전북 동부에서는 장수 장계리고분군이 주목된다. 장계리 8호분에서 망치와 모루 등 단야구 세트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철의 왕국 운운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부산, 김해처럼 판상철부, 철정이나 주조철부 등을 다량 생산하고 부장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생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철을 생산하였다는 사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유와 유통 주체의 문제이다.

원 전북학연구센터.

33 이정욱(2025), 「전북 동부지역 '가야봉화'와 백제 사기비 관방체계」, 『백제학보』 54, 백제학회, pp. 151.

34 유영춘(2023), 「전북지역 제철유적의 현황과 시대별 특징」, 『호남고고학보』 74, 호남고고학회, p. 156.



출처: 이정욱(2025).

[그림 4] 완주 북동부의 산성과 봉화

- 가야는 철의 왕국이다.
- 전북 동부에서도 철 생산과 철기 제작이 활발하였다.
- 그러니 이곳도 가야이다.

이런 식의 논법은 곤란하다.

가야란 무엇인가? 국가명인가 지명인가 아니면 종족명인가? 호남 동부를 가야라고 할 경우 이 지역이 원래 가야라는 의미인지 인간집단이 가야계라는 의미인지, 가야 국가가 성립되었는지 그 함의가 분명치 않다.

호남 동부의 대표적인 가야계 고층이 축조되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의 경우도 고층이 들어서기 전에 존재하던 취락은 마한계였다. 따라서 고층만을 근거로 이 지역의 정치체를 애초부터 가야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주민의 이주를 주장하려면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호남 동부는 물론이고 호남 서부에서 발견된 가야산, 혹은 가야계 문물의 출토를 근거로 가야지역 주민의 이주를 인정할 수는 있다.³⁵ 그 규모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만약 고령일원에서 섬진강유역으로 비교적 많은 수의 주민들이 이주하여 정착하였다면 그 지역은 가야가 되는 것인가? 가야고분과 가야토기의 출현이라는 증거만으로 이 지역이 가야였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을까? 필자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가야문화권과 가야 여러 나라 중 하나라는 개념은 동일시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가야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이 글에서 장황하게 설명할 여유는 없으나 역사적으로 가야라고 불린 정치체는 김해와 고령뿐이라고 생각한다. ‘가야제국(加耶諸國)’, ‘가야 여러나라’라는 개념은 연구자들에 의해 창출된 것일 뿐 삼국시대의 가야문화권이 □□가야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아라가야는 안라국, 소가야는 고자국이 그 실체이다. 따라서 호남 동부지역의 이른바 가야문화권에 들어가는 남원과 장수에 □□가야라는 국명을 만들 필요는 없다.

김해가야, 함안가야, 고성가야, 합천가야가 어색하듯이 장수가야는 어색한 표현이다. 전북가야는 더더욱 문제가 된다. 전라북도 전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오도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야권역에서도 국명이 분명치 않은 경우는 ‘생초지역 가야’로 표기하거나³⁶ ‘삼가, 또 하나의 가야왕국’³⁷, ‘함양의 가야’³⁸ 등 얼마든지 대체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35 김낙중(2024), 『전북지역 마한·백제의 고고학』, 진인진, p. 68.

36 대가야계 고분문화가 발달한 합천 생초지역의 정치체를 ‘생초가야’가 아닌 ‘생초지역 가야’로 표현한 경우이다. 산청군·산청박물관·경상대학교박물관(2020), 『산청의 가야, 생초』, 산청박물관·경상대학교박물관 공동기획전.

37 합천박물관(2012), 『삼가, 또 하나의 가야왕국』, 제2회 합천박물관 특별기획전.

38 함양군(2012), 『함양의 가야』, 가야문화유적 현황조사 및 활용계획.

호남 동부에서 가야계 고총이 출현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가야지역의 주민집단이 이주한 것인가? 재지세력의 자발적 모방인가? 고령지역 정치체의 강요인가? 혹은 고령 인근 별도 정치체와 관련된 것인가?

금강수계의 장수와 남강수계의 운봉고원에서 가야계 고총이 등장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전북 동부 전체를 가야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 5세기 대 대가야계 무덤과 유물이 출토되는 지점의 서쪽 한계는 임실, 진안, 장수, 순창, 곡성지역까지 확장되지만³⁹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은 간단치 않다. 영역, 세력권, 영향권의 구분이⁴⁰ 필요한 상황은 호남 동부도 마찬가지이다.

2) 지역정치체에 대한 정당한 평가

호남 동부지역 중 운봉, 장수지역에서 대가야계 고총이 출현하기 이전의 고고학적 상황은 어떠한가? 기문, 반파 등의 명칭과 결부짓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주변과 교섭하던 지역 정치체들에 대한 관심이다. 가야사의 시민권 회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호남 동부지역 정치체의 한국고대사, 고고학에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서도 이들을 일률적으로 마한의 일부로 보거나, 백제 영역화의 시점을 올려 보거나, 모조리 가야의 일부로 보는 시각은 지양되어야 한다.

호남 동부라는 지역권이 그리 넓지는 않지만 작은 분지와 계곡마다 각기 특징있는 물질문화가 영위되었으며 호남 서부, 충청지역, 백제 중앙, 대가야와 소가야, 신라 등 다양한 지역 기원의 물질문화가 이입되고 섞이는 양상을 고려하면서 이 지역의 역사 자체를 추적, 복원하는 작업이 우선되

39 이동희(2008), 「5세기 후반 백제와 가야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p. 130.

40 김영심(2003),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영역」,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어야 한다. 가야의 세력 확장, 백제 영역화 이전에 이 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좌절을 논의하여야 한다.

비록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집권적인 고대국가 체제를 완비하지 못하였지만 호남 동부지역의 여러 정치체의 역사는 나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고대국가 지배체제를 완수한 정치체들과 그러지 못한 정치체들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주변 여러 세력들의 영향력이 중첩되는 지역의 정치체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고 변화하는가? 이러한 문제도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임나사현 할양기사, 기문과 반파 문제만이⁴¹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전남을 포함한 호남 동부, 그리고 서부 경남을 하나의 연구 단위로 묶어서 볼 필요도 있다. 기문, 대사, 반파의 위치 비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호남 동부의 역사를 백제영역 확장사, 대가야 연맹체론, 한일관계사 연구의 객체로 전략시켜 버리기 때문에 지양하여야 한다. 백제와 가야, 신라를 주제로 삼은 연구가 아니라 이 지역 정치체를 중심에 두고 고찰하여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

4. 호남 동부지역 수장의 성격

4.1. 계승성과 단절성

호남 동부에서 가야계 고총이 어떤 맥락에서 출현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우선 이 지역 정치체들의 성장이 청동기시대 이후 연속되는가? 단절되었는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지역도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와 고인

41 장수지역 정치체를 문헌에 나타나는 반파에 비정한다면 변진반로국=반파=가라국에 대한 반대 논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돌의 존재가 분명하다.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에서는 여의곡유적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덤(지석묘, 석곽묘, 옹관묘)이 65기 정도 확인되었다.⁴² 묘역을 갖춘 지석묘들이 누세대에 걸쳐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남해안처럼 일반 성원과 현저히 구분될 정도로 대규모이거나 고가의 부장품을 부장한 사례는 없다. 인근의 풍암유적⁴³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석묘를 축조하던 용담댐 수몰지구 내 정치체들의 발전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곡성 대평리에서는 송국리문화단계의 주구부 석관묘도 확인되었다. 이후 대평리집단의 묘제는 장방형 주구부 목관묘, 말굽형 주구부 목관묘, 선황리식 옹관을 사용한 분구묘 등으로 변화하면서 연속성, 계승성을 보인다.

초기철기시대에는 장수 남양리유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호남 서부에서 청동의기류나 외래 기성품인 철기류, 유리제품을 다량 부장하는 후장묘(厚葬墓), 중원식 동검을 다량 부장(매납)한 함평 초포리유적 등이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호남 동부에서는 물질문화의 발전이 지체된 모습을 보인다. 원삼국단계의 무덤도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같은 시기 한반도 서남부, 동남부와 달리 수장권의 탄생, 원거리 교류의 활발한 전개 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큰 원인은 당시 바다를 통한 원거리 교역로인 한반도 서북지방 - 서해안 - 서남해안 - 남해안 - 일본으로 이어지는 루트에서 벗어난 지리적 조건때문일 것이다. 물자와 정보, 인적 교류에서 호남 서부, 영남 동해안 지대에 비해 처지게 된 결과 삼국시대에 들어와 백제, 신라, 영산강유역권, 가야 여러 정치체들의 영향력이 유입되고 중첩되는 지역으로 되었을 것이다.

42 전북대학교박물관·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2001),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VIII: 여의곡유적』, 전북대학교박물관 총서 26.

43 전북대학교박물관·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2001),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X: 풍암유적』, 전북대학교박물관 총서 28.

삼국시대에 접어들면 남원 광평의 목곽묘에서 소가야계 토기가 부장된다. 이후 다양한 기원을 갖는 토기가 함께 부장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호남 동부의 특징이다. 백제 토기와 대가야 토기가 혼재하는 유적은 남원 장교리고분군, 임실 금성리고분군을 들 수 있다. 백제 토기와 소가야 토기, 재지계 토기가 혼재하는 유적은 남원 행정리고분군이다. 백제 토기와 대가야, 소가야, 재지계 토기가 혼재하는 유적은 진안 황산리고분군이다. 백제 토기와 대가야, 소가야, 재지계 토기, 신라 토기 혼재하는 지역은 장수 삼고리고분군이다. 대가야, 소가야, 안라의 토기가 혼재하는 유적은 구례 용두리고분이다.

이렇듯 소지역별, 시간별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각급 수장층, 엘리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보였을 것이며 주변 세력들과의 교섭 과정에서 그 정체성은 변화하였을 것이다.

수장급 무덤의 피장자가 이 지역의 현지 세력인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자인지, 중앙에서 파견된 자인지를 판별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예를 들어 순창 순화리고분은 사비기의 능산리형 석실묘로서 은제 화형 관식의 출토에서 보듯이 백제 지방관이 매장되었음에는 모두 동의한다. 석실의 구조, 2인 병렬합장, 대금구, 철제 관장식 등에서 중앙의 요소가 강하지만 조사자는 그 피장자를 토착집단으로 보고 있다.⁴⁴

신라고분이 등장한 이후의 상황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진안 평지리고분군은⁴⁵ 신라의 횡구식석곽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선행하는 고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고분에 묻힌 자들은 재지 세력의 후예일까 아니면 신라에 의해 강제로 사민된 자들일까?

44 허윤영(2025), 「순화리 석실분의 조사성과와 백제 사비기 순창지역의 위상」, 『백제학보』 52, 백제학회, pp. 118-119.

45 백제문화개발연구원·군산대학교박물관(1998), 『진안 평지리 고분군: 1997년도 발굴조사』.

때로는 중첩된 정체성, 필요에 의한 정체성의 표현 방식 차이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가야계 묘제와 토기류, 철기류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백제계 위세품(금동식리, 동경)이 출토된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피장자가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4.2. 지역 정치체의 발전 수준

고대국가로 성장해가는 정치체들의 발전수준을 논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역사학계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외교의 시작, 고유한 국명의 존재, 왕권과 관료제의 흔적, 축성사업 등을 거론한다. 고고학계에서는 왕권의 출현과 그 증거로서 왕성과 왕릉, 고분의 위계화,⁴⁶ 통일된 토기양식의 성립, 고가의 위세품 분여체제, 수취시설(창고군), 지방지배 거점(산성 등)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호남 동부에 적용해 보자. 역사학자들이 즐겨 다룰 기준은 좀처럼 확인하기 어렵다. 이 지역 정치체들의 국명을 사서에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지만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고대의 정치체는 반드시 그 이름을 사서에 남긴다’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사서에서 이름을 찾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 현존 사서에 남아 있는 국명과 실제로 과거에 존재하였던 정치체의 숫자가 일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고훈(古墳)시대 일본에는 키나이(畿内)의 야마토(大和)를 제외하고도 초기 국가라고 부를 만한 정치체가 다수 존재하였다. 오카야마(岡山), 산잉(山陰), 규슈(九州) 북부, 간토(關東) 등지에서 발전한 정치체들은 『일본서기』에 그 흔적을 희미하게나마 남겼고 고고학적 실체로 우뚝 서 있지만 뚜렷한 국명을 남기기는 못하였다. 7세기 이후 율령제 아래에서 고대 지명과 연결

46 후장, 순장 등이 포함된다.

되거나, 역사상의 인물과 연결되는 것이⁴⁷ 고작이다. 따라서 국명을 남기지 못하거나, 존재하였지만 현재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 버린 수많은 정치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고고학계의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우선 왕성과 왕릉의 존재 문제이다. 호남 동부에서 왕성이라고 부를 만한 실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진안 와정산성이나 순천 검단산성 등의 유적은 이 지역 정치체가 축성하였다기보다는 백제 중앙에 의해서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왕릉이라고 부를 만한 최고 위계의 고총은 여럿 확인된다. 장수와 남원, 순천 등지에서 특히 현저하다. 이 지역 고유의 토기 양식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치 않은 점이 많다. 3~4세기 무렵의 토기문화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5~6세기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중 가야계 토기, 백제계 토기, 영산강유역 토기, 왜계 토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지역의 토기로 이해하려는 정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분명치 않다. 고분의 고대화(高大化)가 최고 점에 오른 5~6세기 대에도 이 지역의 고유한 토기양식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지역에서 제작한 고가의 위세품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는 청자 계수호, 철제 초호, 철제 갑주, 금제 이식 등이 출토되었다. 이 지역 최고 수장묘인 M1-A호분에서는 금사와 은사를 시문한 상감 환두대도가 출토되었다. 중국 남조산 청자 계수호는 백제를 통하여 입수하였을까, 아니면 대가야를 통하여 입수하였을까? 호남 동부지역의 자체적인 활동의 결과물일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백제 아니면 대가야가 중간에 개재할 것이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할 때 호남 동부 정치체들의 발전수준을 고구려, 백

47 북부 규슈를 무대로 (반)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다가 6세기 전반 야마토의 게이타이(繼體)에 의해 통합되는 이와이(磐井)의 세력이 대표적이다.

제, 신라와 비교할 수는 없다. 자체적인 토기 양식을 만들어낸 김해, 고령, 함안 등과 비교해 볼 때도 열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철기 생산에서도 가야지역에 비해 열세이다. 김해 봉황토성, 함안 가야리토성, 합천 성산리성의 존재를 볼 때 호남 동부 정치체들이 자체적으로 축성을 진행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

5. 맺음말

호남 동부지역의 정치체가 백제에 속하느냐 가야에 속하느냐 하는 논쟁은 유익하지 못하다. 백제가 언제, 대가야가 언제, 신라가 언제 이 지역을 장악하였는가 하는 논의는 진실보한 것이지만 아직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였다. 핵심은 이 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좌절, 주변의 발전된 고대 국가들과 맺은 다양한 교섭이 내용일 것이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이 지역 정치체들을 설정하여야만 영산강유역권, 가야권과 함께 균형잡힌 연구가 가능해진다. 다른 의미에서는 문헌자료가 부족한 영산강유역권이나 가야권 연구를 위해서도 호남 동부는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주체로 설정되어야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백제, 소가야, 대가야, 신라 등과 맺은 관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정치체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으로 구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경계, 중첩, 정체성의 농담(濃淡)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대의 영토와 경계는 수많은 공백지, 그리고 복수의 세력이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는 중첩지, 타국 영토 혹은 세력권 안에서 자국의 영토, 세력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호남 동부 여러 정치체 주장들의 정체성은 그 자체가 다양한 방향성을 보였을 것이며 매우 유동적이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발굴보고서 및 전시도록

- 곡성군·마한문화재연구원(2008), 『곡성 오지리유적』.
- 곡성군·민족문화유산연구원(2021),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2020), 『長水 東村里 古墳群』.
- 군산대학교박물관(2005), 『전북동부지역 가야유물』.
- 구례군·남도문화재연구원(2007), 『구례 봉북리유적』.
- 마한문화연구원(2010), 『순천 덕암동유적 II』.
- 박천수·정선운·신동호(2021), 『가야, 영호남을 넘다』, 경복대학교출판부.
- 백제문화개발연구원·군산대학교박물관(1998), 『진안 평지리 고분군: 1997년도 발굴조사』.
- 산청군·산청박물관·경상대학교박물관(2020), 『산청의 가야, 생초』, 산청박물관·경상대학교박물관 공동기획전도록.
- 순천대학교박물관·순천시(2001), 『순천 용당동 망북유적』, 순천대박물관학술자료총서 28.
- 순천대학교박물관·여수시(2002), 『여수 화장동유적 II』.
- 전라북도·군산대학교박물관(2004), 『전북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 전라북도남원군·전북대학교박물관(1989), 『斗洛里』, 전북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 2.
- 전북대학교박물관·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2001),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VIII: 여의곡유적』, 전북대학교박물관 총서 26.
- 전북대학교박물관·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2001),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X: 풍암유적』, 전북대학교박물관 총서 28.
- 전영래(1983), 『남원, 월산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함양군(2012), 『함양의 가야』, 가야문화유적 현황조사 및 활용계획보고서.
- 합천박물관(2012), 『삼가, 또 하나의 가야왕국』, 제2회 합천박물관 특별기획전도록.

논저류

- 곽장근(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 곽장근(2021),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 2,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 권오영(2008), 「섬진강유역의 삼국시대 취락과 주거지」, 『백제와 섬진강』, 전북문화재연구원.
- 권오영(2010), 「백제 변경에서 확인되는 왕경인의 물질문화」, 『한국상고사학보』 67, 한국상고사학회.

- 권오영(2017), 「고대 동아시아의 항시국가와 김해」, 『가야인의 불교와 사상』, 주류성.
- 권오영(2024),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4~6세기의 교류」, 『세계유산 등재기념 가야고분군 학제간 연구』, 제1회 소가야학술대회자료집.
- 김경립(2020), 「保羅國의 형성과 변천」, 『지역과 역사』 47, 부경역사연구소.
- 김낙중(2024), 『전북지역 마한·백제의 고고학』, 진인진.
- 김영심(2003),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영역」,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 김재홍(2021), 「삼국 초기 海上 英雄과 국가의 성격: 영웅시대의 설정」, 『한국학논총』 56,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노중국(2005), 「가야의 대외교섭: 3~5세기를 중심으로」, 『加耶의 海上勢力』, 김해시 제11회 가야사학술회의 자료집.
- 백승욱(2019), 「문헌자료로 본 泗川 史勿國」, 『로컬리티인문학』 22.
- 선석열(1997), 「蒲上八國의 阿羅國 침입에 대한 考察」, 『가라문화』 14,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 심진수(2025), 「장수 화양리 유적」, 『2025 호남고고학회 유적 및 신진연구자 발표』, 호남고고학회.
- 이동희(2008), 「5세기 후반 백제와 가야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 이은석(2022), 「삼국시대 연안 항로와 섬」, 『섬(島)의 고고학』, 제31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자료집.
- 이정욱(2025), 「전북 동부지역 '가야봉화'와 백제 사기비 관방체계」, 『백제학보』 54, 백제학회.
- 이창희(2022), 「삼한시기 사천의 고고학적 양상」, 『사천 사물』, 사천과 사물국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 전영래(1985), 「백제 남방경역의 변천」, 『천관우선생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 조명일(2018),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 조명일(2021),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구조」,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 허윤영(2025), 「순화리 석실분의 조사성과와 백제 사비기 순창지역의 위상」, 『백제학보』 52, 백제학회.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ncient Po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Leaders in the Eastern part of Honam Province

Kwon, Ohyoung*

Multiple polities that developed in the eastern Honam region have generally been regarded as peripheral in Korean ancient history. This perception largely stems from the traditional historiographical framework that explains the development of ancient states primari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enters or capitals of Baekje and Silla.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is perspective, a new argument emerged suggesting that this region had once formed part of Gaya, and this view is now widely accepted.

However, the identity of the polities in this region is far from straightforward and cannot be simply defined as either Baekje or Gaya. The material culture of the numerous small-scale polities differed from one another, and over time they alternately adopted elements of material culture from surrounding polities, including Baekje, Daegaya, Sogaya, and Silla.

The level of development among the polities of the eastern Honam region varied considerably, and the degree of chiefly authority was not uniform. Their political approaches and attitudes toward Baekje and Gaya were also not identical, differing from region to region. Accordingly,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polities of the eastern Honam region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single political entity that was incorporated at once by Baekje or Gaya, but rather as multiple polities possessing diverse identities. Moreover, instead of treating them merely as objects incorporated into Baekje, Gaya, or Silla, future research should place these regional polities themselves at the center of analysis.

Keywords Eastern Honam Region, Polity, Chief, Gaya, Baekje, Silla

